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 Task

3등 솔루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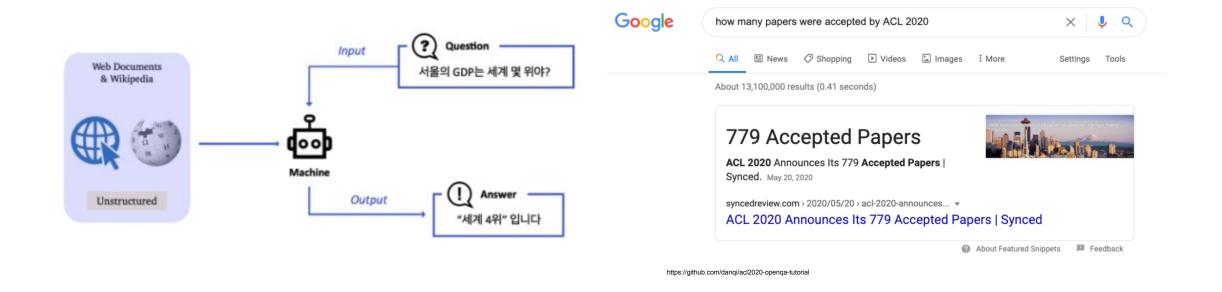
1조: 강범서, 오필훈, 이예진, 한기백, 정유리

목차

1. 대회 개요 & 외부데이터

- 2. Retriever
 - a. Sparse Retriever
 - b. Dense Retriever
- 3. Reader
 - a. Data Augmentation
 - b. Hyper-parameter Tuning
- 4. Retriever + Reader
- 5. Ensemble
- 6. Conclusion

대회 개요



- 방대한 World Knowledge (Knowledge Base, Tables, Web documents & Wikipedia) 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Task
- 대회는 주어진 한국어 wikipedia documents를 바탕으로 retriever, reader two-stages 단계로 답변을 추출
- 이전 대회와의 차이점 KLUE-MRC 데이터셋을 제외한 모든 **외부 데이터 사용 허용**

외부 데이터

- 1. KorQuAD 1.0 한국어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을 위해 만든 데이터셋 (출처: <u>KorQuAD 1.0</u>)
 - a. KorQuAD_v1.0_dev.json
 - i. context: 964, question: 5774
 - b. KorQuAD_v1.0_train.json
 - i. context: 9681, question: 60407
- 2. 일반상식 위키백과 데이터셋 질문 정답 쌍 (출처: ALHUB 일반상식)
 - a. ko_wiki_v1_squad.json
 - i. context: 68538, question: 100268
- 3. 기계독해 위키백과 데이터셋 질문 정답 쌍 (출처: Al HUB 도서자료 기계독해)
 - a. ko_nia_normal_squad_all.json
 - i. context: 47314, question: 243425
 - b. ko_nia_noanswer_squad_all.json : 답변 불가능한 질문 추가
 - i. context: 20030, question: 100244
 - c. ko_nia_clue0529_squad_all.json: factoid 뿐만아니라 why, how 등 설명가능 질문 추가
 - i. context: 34500, question: 96663

외부 데이터

너무 많은 Dataset,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야 할까?

기준1. annotation bias 를 줄이자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알고 질문!

-> 어휘 중복

context 없이 질문이 성립 안함!

-> 마지막 소토마요르를 포함 몇 명의 선수들이 결승을 다투었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소토마요르는 결승전만 적어도 24번 진출한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기준2. DPR 의 in-batch-negative sampling 을 고려하자

in-batch-negaitve sampling 시

서로 다른 question 에 대해 정답 context 가 일치하고 해당 질문들이 같은 배치에서 훈련시 negative context 와 positive context 가 같아져 훈련이 어려워짐.

-> 이상적으로 context 과 question의 비율이 같으면 좋음

검증. top-20 elasticsearch accuracy

korquad v1:80.39, AI HUB 일반상식:59.88 -> 어휘 중복 낮음

위의 기준에서 1) 질문과 context의 어휘 중복이 낮고, 2) 비교적 질문이 context에서 독립적이고, 3) context와 question의 비율이 비슷한 일반상식 위키백과 데이터셋 질문 - 정답 쌍 (출처: <u>Al HUB 일반상식</u>) dpr. mrc에서 대회 제공 데이터와 함께 baseline data로 선택하여 진행

Sparse Retriever

다양한 Retriever & Tokenizer 종류

Retriever

- TF-IDF, BM25, BM25L, etc
- TF-IDF, BM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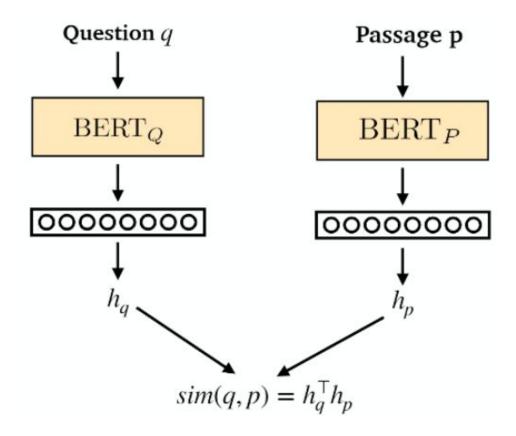
Tokenizers

- Transformer Tokenizers, Mecab, Okt, etc
- Mecab, bert-base-multilingual-cased, klue/roberta-large, monologg/koelectra-base-v3-discriminator

Elasticsearch (BM25 + nori-tokenizer)

결과 Elasticsearch - top20 accuaray: 0.950381679389313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Domain Question Answering(2020)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Domain Question Answering(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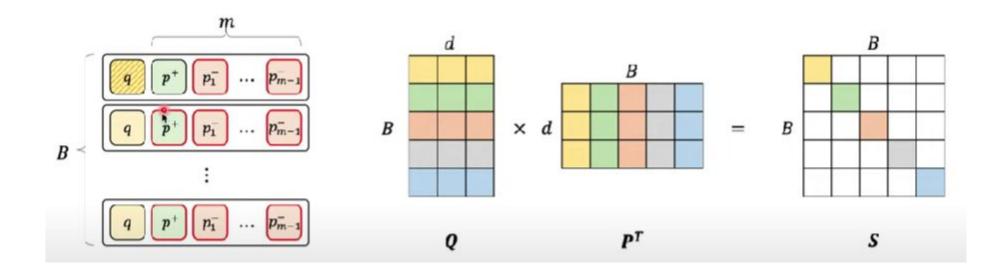
많은 걸 바꿔야 했음

- → 지금까지 다룬 모델들과 달리 Encoder를 2개를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모델을 새로 정의해 주었어야 했으며, 2개를 결합하여 훈련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loss도 새로 만들어줬어야함.
- → 또한, in-batch negative training 방식은 batch 내에서 negative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input에는 negative에 대한 label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label 없이 훈련 가능하도록 trainer도 새로 만들어줬어야함.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Domain Question Answering(2020)

훈련

In-batch Negative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Domain Question Answering(2020)

Model klue/roberta-large

Loss 다음과 같은 NLL loss를 활용함.

$$L(q_{i}, p_{i}^{+}, p_{i,1}^{-}, \cdots, p_{i,n}^{-})$$

$$= -\log \frac{e^{\sin(q_{i}, p_{i}^{+})}}{e^{\sin(q_{i}, p_{i}^{+})} + \sum_{j=1}^{n} e^{\sin(q_{i}, p_{i,j}^{-})}}$$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Domain Question Answering(2020)

결과

한 batch 내에서의 정확도는 기대감을 부풀게 하였음.

(약 97%의 정확도를 보임. batch_size=8 기준)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Domain Question Answering(2020)

그러나...

Top-1: 33%

Top-5: 61%

Top-10: 70%

Top-20: 79%

Top-30:83%

Top-50: 89%

Top-70: 92%

Top-100: 94%



전체 training data(약 3952개)에서의 Top-20을 기준으로 79%정도의 정확도를 보임

당시의 Sparse Retriever는 wikipedia_documents.json(56737개) Top-20을 기준으로 93%정도의 정확도임에 비해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예측 실패 원인 분석

▼ '덜', '더' 등의 비교

```
index: 27
(context)
```

포르투갈어와 유사한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갈리시아어가 존재하나, 포르투갈어의 표준규범은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를 들 수 있다. 두 포르투갈어 표준은 발음 면에서 현저한 차이의 변화가 있으며, 문법 면에서는 대명사 체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문 법 면에서 덜 보수적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두 포르투갈어 화자 사이에 이전의 노출 경험이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려 할 경우, 특히 브라질 포 르투갈어 화자가 <mark>유럽 포르투갈</mark>어를 접할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브라질의 텔레노벨라의 오랜 기간 동안의 유럽 지역의 보급으로, 포르투갈의 포르 투갈어 화자는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액센트 및 특정 단어의 이해 면에서 덜 어려움을 겪는다.날짜=2017-11-09\n\n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 트루갈어는 현재 별도의 유사한 철자 표준을 각각 두고 있다. 이 두 표준의 통합 표기법(제한된 수의 단어는 이중 맞춤법을 허용)에 브라질 및 포 로투갈 정부에 의해 승인되어, 현재는 공식적인 표준으로 존재한다. 공식 표기 표준은 문법적으로 서로 유사하나 일부 사소한 문법적 차이점은 존재 한다.\n\n이 외에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어 사용 지역에서 사용되는 아프리카 포르투갈어 와 마카오, 동티모르 등의 아시아 포르투갈어 는 유럽 표준 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각자 특유의 발음 및 문법이 발전되었다.

(question) 문법 측면에서 더 보수적인 포르투갈어 표준은? (answer) {'answer_start': [61], 'text': ['<mark>유럽 포르투갈</mark>어']} (prediction) 브라질 포르투갈어

● "또한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문법 면에서 덜 보수적으로 간주된다." → context 전체가 '유럽 포르투갈어'와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차이에 대해 논하고 있고, 브라질 포르투갈어가 '덜 보수적'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더 보수적인 포르투갈어'는 '유럽 포르투갈어'로 예측해야 함.

아마도 문장 내에 '(유럽 포르투갈어보다) 덜' 등의 표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브라질 포르투갈어'라는 문구와 '보수적'이라는 단어만 연결해서 잘못된 예측을 하지 않았나 싶음.

 '덜', '더'를 포함한 비교급 표현들이 포함된 context, question, answer를 구해서 data augmentation 후 학습을 진행하면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함축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는 모델을 사용..? <prediction is in context, but not answer!>
index: 115
/context)

(뒤러의 코뿔소)(Dürer's Rhinoceros)는 알브레히트 뒤러가 르네상스 시대인 1515년에 제작한 목판화이다. 그림은 1515년 초 리스보에 도착한 인도코뿔소를 보고 어느 화가가 묘사한 글과 간단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뒤러의 목판화는 코뿔소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뒤 러는 코뿔소를 목에는 고지트, 가슴 쪽에는 홍갑, 그 사이를 잇는 리벳이 있는 갑옷 같이 딱딱한 판으로 몸이 둘러싸인 동물로 묘사하였다. 또, 코뿔소의 등에 뒤틀린 작은 뿔을 그렸고, 비눌로 뒤덮어진 다리와 톱과 같이 뾰족한 엉덩이도 그렸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특징은 코뿔소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구조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뒤러의 코뿔소는 유럽에서 매우 유명해졌고, 그 후 3세기 동안 많은 복사본들이 판매되었다. 서양인들은 18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 그것을 진짜 코뿔소의 모습으로 생각했다. 결국은 1740년대에서 1750년대 사이에 유럽을 돌아다닌 클라라라는 코뿔소를 그린 그림과 같은 더 현실적이고 세밀한 그림들이 뒤러의 코뿔소를 대신하게 되었다. 뒤러의 목판화는 "아마 어떤 동물 그림도 예술에 이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된다. \n\n한편, 로마 제국 시절 이후 유럽에서 살아 있는 코뿔소가 목격된 것은 처음이었는데, 뒤러는 그려진 코뿔소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 그려진 코뿔소는 1515년 말에 포르투갈의 왕인 마누엘 1세가 교황 레오 10세에게 선물로 보냈던 것이나, 1516년 초에 이탈리아의 해안에서 난파를 당해 죽었다. 그 이후로 1577년 인도에서 포르루갈의 세바스치앙의 궁중으로 와 1580년 경에 스페인의 팰리페 2세에게 상속된 아바다라는 코뿔소가 올 때까지 유럽에서 살아있는 코뿔소를 다시 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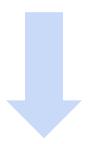
(question) 뒤러는 어디에 코뿔소를 그렸는가? (answer) {'answer_start': [61], 'text': ['목판']} (prediction) 목판화

(question) 이인국 박사가 석방되는 결과를 가져온 병은? (answer) {'answer_start': [444], 'text': ['혹']} (prediction) 스텐코프의 혹

- 뒤러가 코뿔소를 그린 곳은 목판'화'가 될 수 없음.
 - o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data를 더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판과 목판화의 구분)
- 스탠코프의 혹 때문에 이인국 박사가 석방되었지만 석방을 유발한 '병'을 묻는다면 **일반적인 병명**인 '혹'을 정답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임.

예측 실패 원인 분석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 예측을 잘하는 모델을 추가하여 앙상블?" "질문을 수정?"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은 '데이터 증강'

일반상식 - wiki 본문에 대한 질문 - 답 쌍 (train set : 약 68,600개)

일반상식 소개

소개	다운로드				
데이터셋명	일반상식				
데이터분야	음성/자연어	데이터유형		텍스트	
구축기관	마인즈랩		담당자명	안준환(마인즈랩)	
가공기관		데이터관련문의처	전화번호	031-625-4349	
검수기관			이메일	pworks@mindslab.ai	
구축데이터량	15만	구축년도		2017년	
버전	1.0	최종수정일자		2018.01.02	
소개	한국어위키백과 내주요 문서 15만 개에 포함된 지식을 추출하여 객체(entity), 속성(attribute), 값(value)을 갖는 트리플 형식의 데이터 75만 개를 구축한 지식베이스 제공.				
주요키워드	한국어, 위키백과, 일반상식, 지식베이스, WIKI 본문, 질의응답, 챗봇, 지능형 QA 서비스, 위키백과 데이터				
저작권및 이용정책	본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용정책 상세보기]				
데이터설명서		구축활용가이드			
샘플데이터		교육활용동영상			
저작도구		AI모델			

데이터 변경이력

버전	일자	변경내용	비고
1.0	2018.01.02	데이터 최초개방	

WIKI본문에 대한 질문-답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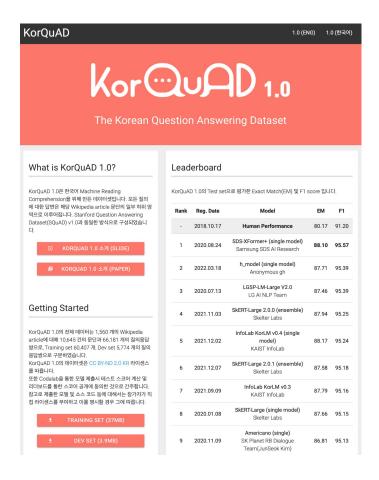
WIKI 본문내용과 관련한 질문과 질문에 대응되는 WIKI 본문 내의 정답 쌍

파일 다운로드

```
{'paragraphs': [{'qas': [{'question': 'ave;new 본거지 어디야', 'answers': [{'answer_start': 22, 'text': '도쿄 치요다구'}], 'id': '9 f2 wiki 3091-1'}],
```

'context': 'ave;new(아베;뉴, アベニュー)는 도쿄 치요다구에 본 거처를 둔 일본의 음악 제작 그룹이다. a ve;new의 프로듀서인 a.k.a.dRESS가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네모토 히데미·마츠시타 미유키를 불러 사운드 팀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 결성의 계기이다. 2003년 7월에 결성된 ave;new는, 주로성인 게임의 주제가나 BGM를 제공하고 있다.주로 파트너 브랜드의 BGM 및 예능 프로덕션도 담당하고 있으며 CD는 그룹명과 같이 ave;new의 라벨로 판매되고 있으나 다른 라벨에 비해 시장에 약간 유통 하기 어렵다.또한 일부의 CD는 d;VIRTU(주식회사 디바트)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은테크노계나 트랜스계와 같이 밝은 곡으로부터,재즈나발라드와 같이 조용한 곡까지 폭넓게 제작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테크노계의 곡은 높은 평가를 얻고있다. ave;new의 프로듀서인a.k.a.dRESS가 학생시절부터의 친구인 네모토 히데미·마츠시타 미유키를 불러, 사운드 팀을 시작하려고 제안한 것이 결성의 계기다. ave;new라고 하는 브랜드명은 "avenue"(길·수단)과 "new"(새롭다)이라고 하는 2개의 단어를 조합한 것으로, 항상 창조의 새로운 길과 수단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a.k.a.dRESS가 이름을 붙였다.'}], 'title': 'Ave;new'}

KorQuAD 1.0 (train set: 약 65000개)



```
▼ data: [1 1420 items
 v 0:
  ▼ paragraphs: [] 3 items
    ▼ qas: [] 8 items
       ▶ answers: [] 1 item
        id: "6566495-0-0"
        question: "바그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무엇을 쓰고자 했는가?"
      v 1:
       ▶ answers: [] 1 item
        id: "6566495-0-1"
        question: "바그너는 교향곡 작곡을 어디까지 쓴 뒤에 중단했는가?"
      ▶ 2:
      ▶ 3:
      ► 4:
      ▶ 5:
      ▶ 6:
      7:
      context: "1839년 바그너는 괴테의 파우스트을 처음 읽고 그 내용에 마음이 끌려 이를 소재로 해서 하나의 교향곡을 쓰려는 뜻을 갖는다.
       이 시기 바그너는 1838년에 빛 독촉으로 산전수전을 다 걲은 상황이라 좌절과 실망에 가득했으며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는 파우스트의 심경
       에 공감했다고 한다. 또한 파리에서 아브네크의 지휘로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
       데, 이것이 이듬해 1월에 파우스트의 서곡으로 쓰여진 이 작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의 라단조
       조성의 경우에도 그의 전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단순한 정신적 피로나 실의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조성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교향곡 작곡을 1839년부터 40년에 걸쳐 파리에서 착수했으나 1악장을 쓴 뒤에 중단했다. 또한 작품의 완성과 동
       시에 그는 이 서곡(1악장)을 파리 음악원의 연주회에서 연주할 파트보까지 준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초연은 4년
       반이 지난 후에 드레스덴에서 연주되었고 재연도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그 사이에 그는 리엔치와 방황하는 네덜란드
       인을 완성하고 탄호이저에도 착수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바쁜 생활이 이 곡을 잊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 1:
   ▶ 2:
    title: "파우스트 서곡"
```



Finished 39.5800 51.6700 **Finished** 45.8300 60.2400

Reader, Hyper-parameter Tuning

RoBERTa: A 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

bsz	steps	lr	ppl	MNLI-m	SST-2
256	1 M	1e-4	3.99	84.7	92.7
2K	125K	7e-4	3.68	85.2	92.9
8K	31K	1e-3	3.77	84.6	92.8

Table 3: Perplexity on held-out training data (ppl) and development set accuracy for base models trained over BOOKCORPUS and WIKIPEDIA with varying batch sizes (bsz). We tune the learning rate (lr) for each setting. Models make the same number of passes over the data (epochs) and have the same computational cost.

특정 지점까지는 batch size를 늘리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됨

Reader, Hyper-parameter Tuning

training_args.gradient_accumulation_steps = 16
training_args.per_device_train_batch_size = 8

'gradient_accumulation_steps'를 이용하여 다양한 batch size 실험(8, 16, 32, 64, 128, 256)

batch size 128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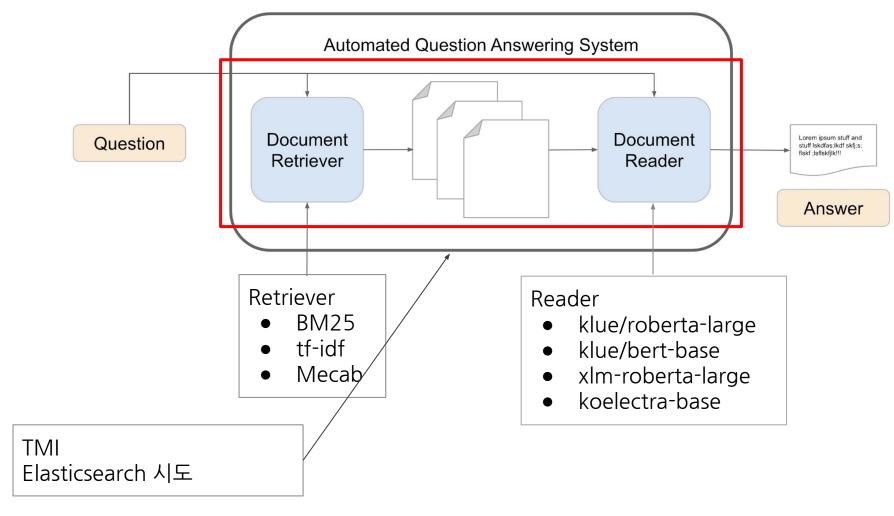
klue/roberta-large				koelectra-b	ase
Finished	57.5000	69.4500	Finished	30.4200	42.9700
Finished	58.3300	71.2800	Finished	35.4200	49.7500
Finished	55.8300	68.9000	Finished	41.2500	54.0600

Reader, Hyper-parameter Tu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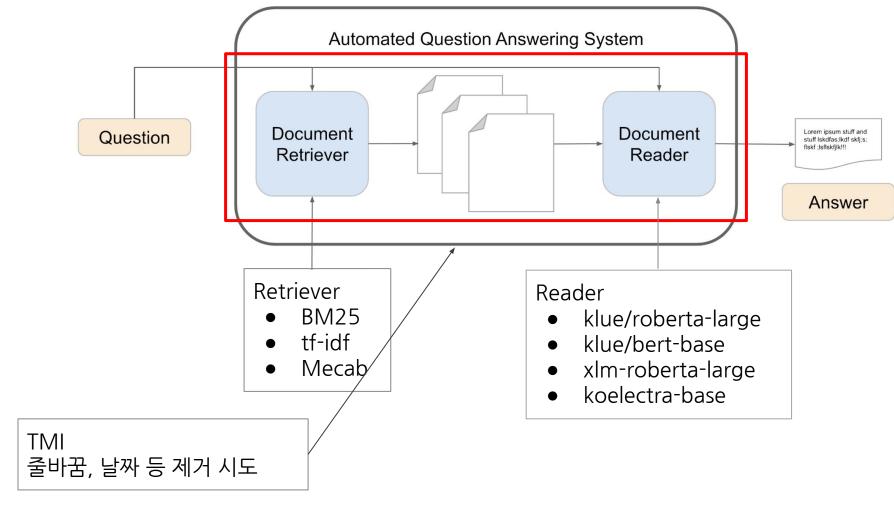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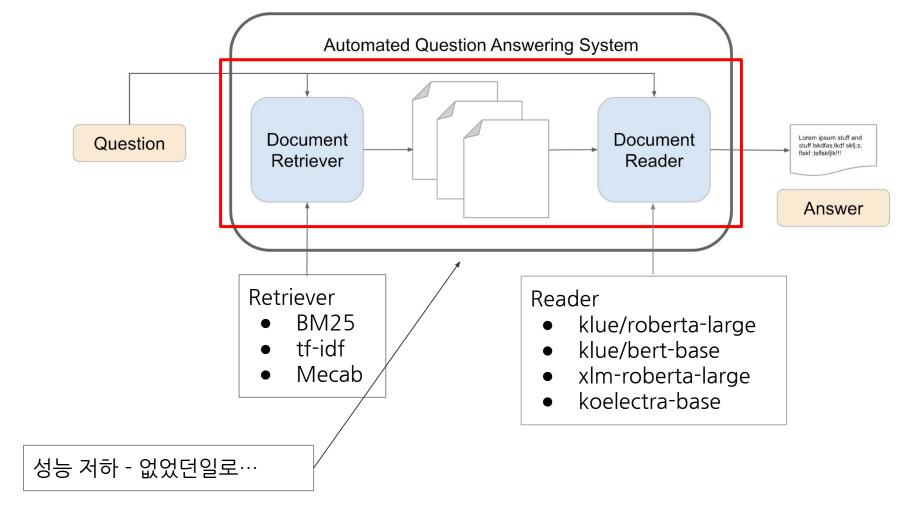
Retriever + Reader



Retriever + Reader



Retriever + Reader



Ensemble

soft-voting

- 각 prediction에 대한 probability를 모두 더한 후 가장 높은 probability를 갖는 prediction text 제출
- '특정 text에 대해 각 모델이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의 모델이 해당 text를 예측했는지'를 모두 반영

```
def get_preds(total_nbest):
    preds = {}
    for id_ in total_nbest.keys():
        best = sorted(total_nbest[id_].keys(), key=lambda x: total_nbest[id_][x])[-1]
        preds[id_] = best
    return preds
```

Ensemble

soft-vo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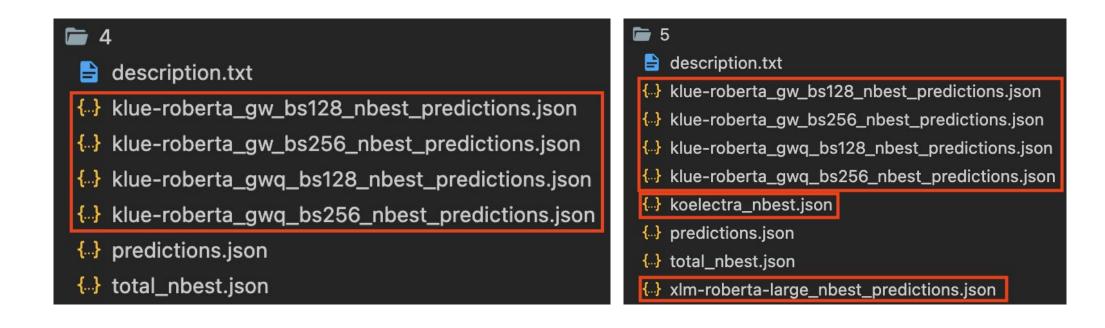
- 각 prediction에 대한 probability를 총 합한 후 가장 높은 probability를 갖는 prediction text 제출

```
"뉴질랜드": 3.7963509206401795,
"뉴질랜드에서": 0.002903978049289435,
"바누아투": 0.25237240876140277,
"심가포르": 0.053681404217059026,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언어는 세 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고, 다른 언어는 영어와 뉴질랜드 수화이다.": 0.00023766442427586298,
"뉴질랜드 북쪽에 사는 마오리족은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뉴질랜드": 3.571222350728931e-05,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언어": 0.00014560615613845584,
"심가포르에서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심가포르": 1.7501615729997866e-05,
"바누아투는 현재 예전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3가지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누아투": 0.00456370169672482,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언어는 세 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고, 다른 언어는 영어와 뉴질랜드": 7.52786224893498e-05,
"예를 들어, 뉴질랜드": 7.173551011874224e-06,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언어는 세 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고, 다른 언어": 6.965573140860215e-05,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언어는 세 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고, 다른 언어는 영어와 뉴질랜드 수화": 9.167216182959237e-05,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언어는 세 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 9.693712399894139e-06,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언어는 세 개의 공식 언어": 1.6219872804867919e-06,
"정착국들은 토착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7.334261181313195e-05,
"토착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1.1982880323557765e-06,
"유럽연합": 0.049595541262533516,
"바누아투는": 0.001550592376588611.
"뉴질랜드 초대 충독 윌리엄 흡슨은 1842년에 사망했다. 뉴질랜드": 1.2190180314064492e-05,
"": 6.150511126179481e-05,
"캐나다": 8.219446499424521e-06,
"아일랜드": 0.3057541102170944,
"미국": 0.2873286511749029,
"링구아 프랑카": 0.07816744036972523,
"멕시코": 0.03817123919725418,
"영국": 0.027642924338579178,
"링구아": 0.02621247060596943,
"\n유럽연합": 0.024054352194070816,
"미국인": 0.023081675171852112,
"유엔": 0.06519082374870777.
"ENG": 0.02201148308813572,
"뉴질랜드, 통가 등이 주변국이다.\n\n바누아투": 5.1055802032351494e-05,
"솔로몬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통가 등이 주변국이다.\n\n바누아투": 4.945573164150119e-05,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통가 등이 주변국이다.\n\n바누아투": 3.393581573618576e-05,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언어는 세 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고, 다른 언어는 영어": 3.387605829630047e-05,
"반드시": 0.25916697084903717.
"심지어": 0.07065340131521225,
"\": 0.16849475353956223,
"적어도": 0.11683658510446548.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언어 변이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꼭": 0.11683658510446548,
"비록": 0.10564098879694939,
"급속히": 0.04727673903107643.
"오직": 0.03234316408634186,
"너무": 0.011543489061295986,
"CHEP": 0.01154347788542509.
"바누아": 5.60479702471639e-06,
"바누": 5.053680069977418e-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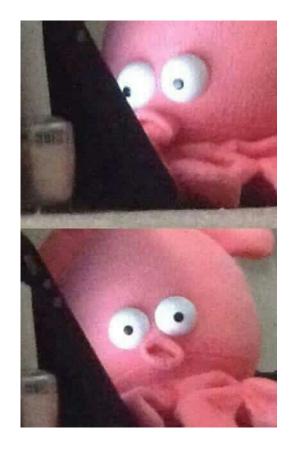
"mrc-0-003951": "뉴질랜드",

Ensemble

- 'klue/roberta-large' 4개
- 'klue/roberta-large' 4개 + 'koelectra' 1개 + 'xlm-roberta-large' 1개



Conclusion



바..발표...?

6	NLP_10조	원식 태양 회 지민	63.7500	73.5800	52	6d
7	NLP-01조	매 급 해 조 !	63.3300	75.8500	40	3d
8	NLP_06조	⊙ ⊝ ⊚ ⊚	59.1700	69.0300	31	2d
9	NLP-03조	6666	57.5000	68.5400	31	19h



Public

1	NLP_09조	<code-block> 🚓 🧁 😂</code-block>	69.7200	81.7400	81	15h
2	NLP_11조	진혁	66.1100	78.0400	97	18h
3	NLP-01조	명 급 최 조 !	64.4400	76.9100	40	16h
4	NLP-07조		63.0600	74.4900	77	1d

Private

감사합니다!

